

2022년 성탄 메시지

부요한 자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

고후 : 8: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가난한 시골 처녀의 몸을 빌어 말구 유간에 태어 나셨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 지라도 말구유에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게 나서서 가장 가난하게 사셨다. 그리고 어떤 인간도 당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함이 아니요 바로 죄 아래 팔려 가난 과 고난과 죄의 심판아래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나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첫 번 성탄절을 맞이했던 기억은 항상 생생하게 남아 있다. 당시는 난방 장치도 잘 되어 있지 않아 성탄절은 한 없이 추운 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나에게 따뜻하고 포근함을 주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탄생 하신 사실이 나에게 너무나 큰 의미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보여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사랑이란 상대편의 최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최대의 희생을 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나라를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가난한 집의 아기로 태어나서 십자가를 지신 자기의 최대의 희생인 십지기를 통해서 우리의 최대의 유익인 영생을 주신 것이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 하기 위하여 우리도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다. 나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군밤과 귤을 팔고 연탄을 배달해서 번 돈으로 양로원에 가서 할머니들에게 떡국을 끓여 드리고 선물을 드렸던 때 누렸던 나의 첫 번째 성탄의 즐거움을 잊을 수가 없다.

금년 성탄을 맞아 예수님처럼 위대하게 사신 분을 소개함으로 예수님의 생신을 기억하고자 한다.

한 시골 소녀가 남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려 봉사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 했을 때 얼마나 큰 주님의 영광을 들어 냈는지 모른다.

가천 길재단 이길여 회장은 1932년 전라북도 옥구군 대야면 죽산리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들을 바라던 어른들의 기대 탓에 태어나던 순간부터 구박을 받으며 자랐다. 여섯 살 때까지 말도 제대로 못해 주위 사람의 걱정을 샀지만 열 아들 부럽지 않은 딸이 되기 위해 이를 악물고 공부해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다. 가당치도 않다는 사람들의 편견을 물리치고 당당히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다. 어려

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유년 시절부터 의학에 뜻을 두었고 195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58년,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수료한 뒤 고향 군산에 내려가 군산 도립병원에서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해, 인천에서 조그만 크기의 산부인과인 **자성의원**을 개원하였다.

1964년, 도미하여, 뉴욕의 메리 이머컬리트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퀸즈 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1968년, 귀국하였으며 이듬해, 다시금 인천에서 이길여 산부인과를 개원하였다. 보증금 없이 진료한다는 간판을 걸고 산부인과를 개업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이후, 당시에는 드물었던 선진 의료 시설과 친절한 진료 등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으며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던 1975년, 사십이 넘는 나이에 일본 유학길에 올라 2년 뒤, 니혼 대학 대학원 의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1978년, 전 재산을 털어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종합병원인 의료법인 인천길병원을 설립하였다. 이어 1982년, 의료 취약지인 양평군에 양평길병원을, 1987년, 인천에 중앙길병원을 세웠으며 1988년에는 철원길병원을, 1993년에는 남동길병원을, 1995년에는 백령길병원을 차례로 개원시키는 등 나날이 사업을 확장해 전국 각지에 자병원을 건립해 나갔으며 탁월한 추진력과 남다른 경영 수완으로 국내 굴지의 의료그룹을 탄생시켰다.

염원이었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사업에도 뛰어들어 1994년, 경기전문대학과 신명여자고등학교의 재단 신명학원을 인수, 이사장에 취임하였으며 이듬해 법인 명칭을 바꾸고 학교법인 가천학원을 설립하였다. 1998년, 가천의과대학(지금의, 가천의과학대학교)을 설립하였으며 같은 해, 경영난에 빠진 경원대학교와 경원전문대학의 재단 경원학원을 인수해 이사장에 취임, 2000년 경원대학교의 총장으로서 대학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 경영자로서의 유능함도 과시하고 하였다.

역사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여 1995년, 가천문화재단을 설립, 가천박물관을 짓고 국보 제276호인 초조본유가사지론을 비롯한 각종 유물 2만여점을 보관하고 있다. 1999년, 경인일보의 회장에 취임하였으며 2002년에는 가천길재단의 회장에 취임하였다.

1998년 가천의과대가 문을 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적잖이 놀랐다. 입학생 전원에게 6년 동안 등록금 전액면제, 기숙사 무료 제공, 장학금 추가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이길여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가난 때문에 의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훗날 이들이 따뜻한 가슴으로 인술을 베푸는 의사가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또한 조장희 박사와 김성진 박사 등 세계적인 과학자로 인정받고 있는 우수한 석학들을 영입하고 최첨단 장비를 갖춘 뇌과학연구소와 암·당뇨연구원을 건립해 연구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 두 연구 기관은 무엇을 만들어 파는 곳이 아니라 오로지 연구에만 몰두하고 연구 성과만이 나오는 곳이다.

이처럼 이길여 회장이 거액을 들여 학교와 연구소를 설립해 지원하는 것은 훌륭한 인재가 있어야 수만 명의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이제 세상은 지식과 정보, 두뇌를 앞세우는 시대가 되었기에, 사람만이 희망이고 그 사람을 지원하는 일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쳤다고 했다. 이제 여생을 편하게 보낼 만도 한데, 젊은 시절 죽도록 일만 하며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자꾸 일을 벌이느냐고 말했다. 그것도 천문학적인 액수가 계속해서 들어가기만 하는 일을. (...)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한다. “누군가 미쳐야 세상이 바뀐다. 자기 일에 미친 사람만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다. 미친 우리 때문에 언젠가 사람들은 질병과 고통 없는 세상에서 편하게 웃으며 살 수 있으리라.”

이길여 회장에게는 삶에 있어 변치 않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 바로 의사로서 ‘첫째도 봉사, 둘째도 봉사, 셋째도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성을 다해 환자를 돌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에게 환자는 조국이고 신념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기에 이길여 산부인과 시절 환자들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갔다. 이길여 회장은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단 근로자에게도 24시간 병원 문을 개방해 진료의 기회를 넓히고, 지속적으로 해외 의료 봉사도 진행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먹고살기 급급해 기본적인 의료 지식마저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자궁암 무료 검진과 교육은 물론 무의촌 진료를 실행해 나갔다.

의사는 환자의 고통과 절박함을 그때그때 해결해주는 봉사자다. 환자들이 의사들 편의를 위해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만큼만 아파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나 명분이 있더라도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일이 있거나, 환자가 있는데 스스로 병원 문을 닫아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의사는 단순한 노동자도 월급쟁이도 아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천직이다. 다른 일은 멈췄다가 다시 할 수 있지만, 한번 떠나버린 생명은 결코 다시 살려낼 수 없다. 사랑의 인술을 펼치기보다는 경제적인 부를 위해 의사의 길을 선택하기 쉬운 요즘, 이처럼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몸 바쳐 환자를 치료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직접은 배울 수 없지만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배울 것이 많이 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큰 복을 받게 된 것인가? 우리는 하루아침에 그와 같은 삶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꾸준히 배워야 한다. 조금 자신을 손해 보는 삶을 배워야 한다. 나의 적은 희생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삶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그가 흠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고후 9:9, 시편 112:9인용)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금년 성탄을 맞아 우리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적은 희생이라도 감당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